

국어 서사문 담화에서의 중심 전이 과정과 응집성에 관한 고찰*

박 철 우
(고려대학교)

Park, Chulwoo. (2002). A study of center transition process and coherence in Korean narrative discourse. *Language Research* 38(3), 851-877.

This paper aims at finding out constraints on the center transition process in Korean narrative discourse to keep it the most coherent. For that purpose, I will analyze a Korean traditional story titled as '*I-Sang-Han I-Pha-Ri* (Magic Leaf)' on the basis of Centering Theory which is originated from Grosz, Joshi & Weinstein (1995). In this approach, the interclausal anaphora resolution depends on those constraints. Firstly, I will introduce the algorithm of the Centering Theory with reference to Korean expressions. Secondly, I will present some working assumptions for the analysis of Korean utterances, which include the issues of recovering empty pronouns, dividing utterances, recognizing entities and arranging discourse segments. And then, I will discuss the analyzed results of the story to find out the constraints at issue including the forward-looking center ranking of Korean. Meanwhile, the global design of the story will be also considered.

Key words: center, centering, coherence, discourse, narrative, null pronominal

1. 들머리

이 글은 국어 담화 분석의 방법론 정립을 위한 한 시도로서 서사문(narrative)에서, 발화와 발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中心; center)들의 전이 과정을 살피고 그 담화가 그 중심들과 관련하여 최상의 응집성(coherence)을 가질 때 국어에서 요구되는 제약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발화(utterance)란 상황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 실현된

* 이 논문은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1999-037-AA0004)

이 논문은 작성 중에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의 제3회 콜로퀴엄에서 '한국어 서사문 담화에서의 중심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었다. 김미영 선생 등 질문을 하여 준 여러 분과 추후 핸드아웃의 내용에 대해 논평해 주신 이정민 선생님, 그리고 본 원고에 대한 세 분의 익명의 논평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글의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문장을 가리킨다. 둘 이상의 발화가 모여 하나의 담화 분절(Discourse Segment; DS)을 이루고 이러한 DS가 하나 이상 모여 전체 담화(discourse)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중심은 ‘특정 담화 분절에 속하는 각각의 발화에서 담화 모형의 일부를 이루는 의미론적 개체(entities)’라고 정의한다(Walker, Joshi & Prince, 1998). 여기서 말하는 담화 모형이란 특정 담화 분절 DS 안에 있는 발화 U_i 에 의해 환기(喚起; evoke)되는 담화 개체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는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text{ Discourse: DS}_i: U_1(c_1, \dots, c_i, \dots), U_2(c_1, \dots, c_i, \dots), \dots U_i(c_1, \dots, c_i, \dots), \dots$$
- $$\text{DS}_2: U_1(c_1, \dots, c_i, \dots), U_2(c_1, \dots, c_i, \dots), \dots U_i(c_1, \dots, c_i, \dots), \dots$$
- $$\dots$$
- $$\text{DS}_n: U_1(c_1, \dots, c_i, \dots), U_2(c_1, \dots, c_i, \dots), \dots U_i(c_1, \dots, c_i, \dots), \dots$$

각각의 DS에 속한 모든 c 들은 그 DS의 담화 모형을 이루게 된다.

- $$(2) U_i: \text{용}_i \text{이 } \text{미아}_i \text{를 때렸어요.}$$
- $$U_{i+1}: \text{Ø}_{i/\#j} \text{ 나쁜 애예요.}^1)$$

(2)에서 발화 U_i 는, 발화수신자(이하 ‘청자’)에게 두 사람의 개체를 환기시키므로 {용, 미아}라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U_i 와 U_{i+1} 은 연속된 발화이기 때문에 U_i 에서 청자에게 환기된 두 중심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발화 U_{i+1} 에서도 여전히 환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사실 즉, 두 개체가 발화제 공자(이하 ‘화자’)와 청자의 주의 상태(attention state) 속에 환기되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발화로 이어지기 전에 이미 화자와 청자 서로에게 지극히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U_{i+1} 의 Ø 가 이 U_i 의 두 중심 가운데 하나를 선행어로 취하는 대명사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두 중심 가운데 어느 것이 Ø 의 선행어가 될 때 그 담화 분절이 더 응집적으로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중심이 모두 공히 고유명사의 범주를 가지므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두 중심 중 하나는 주격 조사 ‘-이/가’를 동반한 주어(‘용이’)이고 다른 하나는 대격 조사 ‘-을/를’을 동반한 목적어(‘미아를’)라는 사실과, ‘용이’와 ‘미아를’ 사이에 존재하는 어순의 차이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담화 응집성에

1) 담화 단위에서 발화의 부적절성은 통사론적/의미론적 부적절성의 연장선에서 판단될 수 없으므로 #를 사용하기로 한다. #로 표시된 경우는 문법성과 의미성에 있어서는 적절한 문장들이지만 그 담화를 응집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선호되지 않는 표현임을 표시할 뿐이다. 강한 추측, 즉 많은 추론을 부담하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문맥이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를 화용론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상황과 지시체들이 고려된다면 점에서 화용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언어 표현에 대한 제약이 판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용의 측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장 단위를 넘어선 문법적 현상에 대해서는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라는 용어가 특정 이론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 하나의 제약으로 (i) 주어 가 목적어보다 담화 응집성에서 더 선호된다는 제약 (주어 > 목적어) 또는 (ii) 어순이 앞설수록 선호된다는 제약(문두(또는 선행) > 문중(또는 후행))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고 추가되는 자료를 통해 (i)과 (ii) 가운데 어느 제약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대명사의 의미 해석을 위한 선행어 결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의 틀은 일반적으로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이라 알려진 것으로 Grosz, Joshi and Weinstein(1995)에서 그 기본적인 윤곽이 제시된 바 있다.2) 이 글에서는 발화와 발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다양한 언어 내적 또는 외적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명백한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데 동의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발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중심들 가운데 특정 중심이 그 발화를 그 다음 발화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이어지는 발화들이 가장 응집적일 수 있는, 중심들 사이의 제약을 국어의 실제 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서정오(1996)에 실린 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한 편인 ‘이상한 이파리’이다. 부분적인 발화 연쇄를 고려함으로써 중심들의 선호도에 대한 제약만을 살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발화와 발화 사이만이 아니라 담화 분절들 사이의 전체적(global)인 응집성을 함께 고려하여 담화 분석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럴 때 담화의 응집성에 대한 전체적 직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해석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제시보다는 주요 쟁점의 해결 또는 방향 설정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2절에서는 Walker, Joshi & Prince(1998)에 정리된 중심화 이론의 기본 열개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를 국어 자료 분석의 이론적 토대로 삼기로 하겠다.

2. 중심화 이론의 기본적 알고리즘

중심화 이론의 모형에서, 특정 발화(U_i)의 중심(c)들의 집합은 전향중심(forward-looking centers: Cf)이라 명명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 발화(U_i)를 그 다음 발화(U_{i+1})와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f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중심들이란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Cf들 가운데 선택된 하나가 다음 발화의 후향중심(backward-looking center: Cb)이 된다. 그 Cb를 포함한 발화를 U_1 로 고쳐 잡는

2) 1983년에 전산언어학회(ACL)에서 동일한 저자들에 의해 이미 같은 생각이 발표되었었고 ‘중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는 1970년대 말부터 ‘초점(focus)’라는 개념으로 Sidner 등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위의 논문 참조).

다면 Cb는 뒤로 지나간 직전 발화(U_{i-1})의 중심들(Cf)을 참조하여 그 중에서 선택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 Cf가 여럿일 수 있는 반면, Cb는 매 발화마다 하나씩만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³⁾

Cf들은 담화에서, 두드러짐(saliency)의 정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데 이 서열은 부분순(partial order)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Cf의 구성원은 Cp(preferred center)라 불린다. 한 발화에서 Cp와 Cb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쨌든 Cb로 이전 담화를 되돌아보는 것과 Cp로 후속 담화에서의 해석에 대한 선호도를 구상하는 것, 양자의 구별이 중심화 이론의 핵심이 된다. 중심화 이론은 이와 같은 중심들의 구조와 더불어, 세 가지의 제약과 두 가지의 규칙을 두고 있다.

2.1. 제약

중심화 이론은 다음 세 가지의 제약을 가진다.

(3) 제약

발화 U_1, \dots, U_m 으로 구성된 담화 분절 DS 내에 있는 각각의 발화 U_i 에 대해:

1. 거기에는 정확히 한 개의 Cb(U_i, DS)가 있다.
2. 전향중심 목록 Cf(U_i, DS)의 모든 요소는 U_i 내에 실현되어야(realize)한다.
3. Cb(U_i, DS)는 U_i 에 실현된 Cf(U_{i-1}, DS) 가운데 가장 높은 서열의 요소이다.

(3)의 [제약 1]은 담화 분절의 첫 번째 발화와 관련하여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 발화에서부터는 첫 번째 발화에 실현된 중심들 가운데서 선호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발화는 그렇게 되돌아볼 만한 두드러진 개체들(이전 발화의 Cf)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약 3]과 관련하여서도 예외가 된다. (4)를 보자. (Walker, Iida & Cote(1994)의 일본어 예 [예 29]를 국어

3) Walker, Joshi & Prince(1998: 11-12)는 Cb를 Reinhart(1981)이나 Horn(1986)에서 말하는 화제(topic)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Cb는 이전 발화에서 실현되었던 개체들 가운데 가장 화자-청자의 의식 속에 두드러진 것이면서 가장 응집적인 발화의 연속이라면 당연히(가장 무표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으로 믿어지는 개체인 반면, Reinhart(1981) 등에 의해 논의되었던 화제는 주로 단독 발화가 그 대상이 되었고 의식 속에 두드러진 정도보다는, 문두 위치와 나머지 부분이 그것에 대한 화용론적 단언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정의상의 차이가 있다. 물론 정의와 무관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은 현상을 포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문장 문법과 담화 문법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데 의의 있는 발견이 될 것이다.

국어의 경우, 대개 Cb는 \emptyset 로 실현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정의의 연장선에서 화제 표지로 알려져 있는 ‘은/는’의 기능은 무엇인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박철우(1998)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화제로 보되, ‘은/는’은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에 있는 정보 저장소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표지(연결부 표지라 함)로 기능하는 경우로, \emptyset 는 청자의 의식이 이미 그 저장소 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위치(주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보고 있다.

로 옮김)

(4) a. 철수가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Cb: [?]
Cf: [철수, 자료]

b. ∅_i 마침내 절반 정도 끝마쳤다.

Cb: 철수
Cf: [철수] 지속

(4a)가 Cb를 가지는지, 그리고 가진다면 무엇이 Cb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Walker, Iida & Cote(1994)는 이 경우를 ‘최초 중심 구현(initial center instantiation)’ 과정이라 하여 중심화 알고리즘의 부수 효과로 처리하고 있다. 즉, (4a)에서는 Cb 자리가 변형인 상태로 있다가 후속 발화(여기서는 (4b))의 Cb가 결정되면 그것과 통합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4a)와 (4b)가 동일한 Cb를 가질 때 두 발화의 연결이 가장 응집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며 이 글에서도 분석 단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⁴⁾ 다만, 이 발화는 담화 분절 자체의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직전 발화를 고려할 수 없고, 그 이전 발화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이 담화 분절과는 단절된 발화 상황이 선행했을 것이라는 점은 담화 전체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제약 2]에서는 ‘실현’의 정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5) 발화 U는, c가 U에 의해 기술되는 상황 속의 요소이거나 c가 U의 하위부분의 의미론적 해석이면, 중심 c를 실현(realize)하고 있는 것이다.⁵⁾

4) 여기서 다시 Cb를 기존 화제 개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어의 화제를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취하여 i) ‘은/는’ 표지가 붙으며, ii) 한정적인 인지적 위상을 가지는 iii) 문두의 요소라고 상정할 때, (4a)는 ii)와 iii)을 만족시키지만 i)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아가, 흔히, 담화의 첫 발화가 되는 제시문(presentational sentence)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홀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다. (∅_i 아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와 같은 문장이 특정 담화 분절의 첫 발화라면, 이 경우엔 ‘한 선비가’는 i-iii)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대개 두 번째 발화의 Cb부터는 -영형 대명사(∅)의 경우를 ‘은/는’이 붙은 화제에 상당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위의 화제의 정의와 일치할 보인다.

첫 번째 발화에 도입된 요소 가운데 하나를 Cb로 보는 주된 이유는, Cb(U_i, DS)와 Cb(U_{i+1}, DS)이 일치하는 것이 그 두 발화가 ‘지속’의 전이 상태를 가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Cb를 본래 정의대로, 뒤를 돌아보아 이전 발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를 취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담화 분절 첫 문장의 Cb는 Cb의 본래적 정의와는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Cb의 본래적인 정의는 위에 상정한 화제 개념에 좀더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심화 이론이라는 동일한 모형 상에서 비교하여, Cb와 일반적인 화제 개념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고 뒤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다.

5) Grosz, Joshi & Weinstein(1985). Walker, Joshi & Prince(1998)에서 재인용.

(5)의 정의에 의해, '실현'이라는 관계는 대명사, 영형(零形) 대명사(\emptyset), 명시적으로 실현된 담화 개체들과 담화 상황에서 추론가능한 개체들인, 암시적으로 실현된 개체들까지를 포괄하여 기술해 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5)에서 후자 즉, c가 U의 하위부분인 경우는 특히 '직접 실현(directly realize)'이라 하여 구별한다.⁶⁾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흔히 화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Cb란 지시체이냐 아니면 지시체를 가진 언어 표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5)에서 말하는 '상황 속의 요소'나 '의미 해석'은 모두 지시체를 의미하며, 그러한 '지시체들'이 그 발화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발화의 Cb는 그 지시체인 중심들을 지시하는 '언어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은 '실현'을 전제로 하고 실현된 중심인 U의 하위부분들은 모두 언어 표현이 된다.

[제약 3]은 Cf의 서열이, 해당 발화에서 실현된 요소들 가운데서 그 다음 발화의 Cb가 될 요소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Cf 서열이 중심화 모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Walker, Joshi & Prince(1998)는 이 서열의 설정 기반으로, 개체들이 실현되는 문법 관계, 표면 어순, 정보 위상 등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섬세한 경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중심화 이론이 발화 상황 속에서 화자와 청자의 의식 속에 담화상의 개체들이 두드러지게 (단기) 기억되는 정도를 포착하여, 그러한 의식 속의 사실들이 개체들이 언어표현화되는 과정에 제약을 가한다는 직관을 적절히 모형화하고 있지만 그러한 직관을 알고리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결국 이 Cf 서열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언어에서 문법 관계, 어순, 정보 위상 가운데 어떤 기준이 이 서열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문법 내에서 각각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들 기준간에 상호작용은 없는가 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이런 물음들에 대한 편견 없는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어의 문법 현상에 대해 고정된 입장이 명확히 가정되었을 때, 그러한 토대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중심화 이론이 가지는 설명력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⁷⁾

2.2. 규칙

중심화 이론은 다음 두 가지의 규칙을 가진다.

-
- 6) 이는 Cf뿐만 아니라 그 DS 내의 중심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개체들을 포함한다는 뜻이 되어 직접 실현된 개체들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수많은 개체들도 실현된 것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어서 매우 넓은 범위의 지시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 7)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를 고려하면서 고려사항을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일관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 일부 가정이 수정되면 그런 수정에 기반한 분석 결과와 그 이전의 분석 결과의 비교가 또한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6) 규칙

발화 U_i, \dots, U_m 으로 구성된 담화 분절 DS 내에 있는 각각의 발화 U_i 에 대해:

1. 만일 어떤 $Cf(U_{i+1}, DS)$ 가 발화 U_i 에서 대명사로 실현되면 그 발화의 $Cb(U_{i+1}, DS)$ 도 그래야 한다. (대명사 규칙)
2. 전이 상태들은 순서가 정해진다. 지속(CONTINUE) 전이는 유지(RETAIN) 전이보다 선호되고 유지 전이는 완전환(SMOOTH-SHIFT) 전이보다 선호되고 완전환 전이는 급전환(ROUGH-SHIFT) 전이보다 선호된다.

	$Cb(U_i) = Cb(U_{i-1})$ 또는 $Cb(U_{i+1}) = [?]$	$Cb(U_i) \neq Cb(U_{i-1})$
$Cb(U_i) = Cp(U_i)$	지속(CONTINUE)	완전환 (SMOOTH-SHIFT)
$Cb(U_i) \neq Cp(U_i)$	유지(RETAIN)	급전환 (ROUGH-SHIFT)

[규칙 1]은 다음과 같은 직관을 반영하고 있다: (i) 대명사라는 범주의 기능은 화자가 담화 상에서 그 대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의 두드러짐을 청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ii) Cb는 흔히 생략되거나 대명사화한다. 만일 한 발화에 여러 개의 대명사가 나타난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Cb이어야 하며, 만일 한 개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Cb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 1]을 국어에 대해서는, 대명사를 영형 대명사(\emptyset)로 한정하여 다시 규칙화할 수 있다. [규칙 1]에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를 고려한 것이었다. 즉, 영어에서 무강세 대명사는 어느 발화에서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가장 두드러진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Kameyama (1985, 1988)는 이것이 일본어의 영형 대명사(\emptyset)에 대응한다고 주장하였고 Walker, Iida & Cote(1994)에서는 [규칙 1]을 그대로 일본어의 영형 대명사 규칙으로 수정한 바 있다. 국어의 경우에도, [규칙 1]은 영형 대명사(\emptyset)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며, 이는 영어의 경우보다 더 이론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영어의 경우, 대명사가 성, 수, 인칭이라는 의미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국어의 경우, 영형 대명사는 동사의 선택 제약을 제외한 아무런 의미 제약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인지적 두드러짐의 기제로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규칙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6)과 같은 조건의 발화 U_i 에 대해:

1. 만일 어떤 $Cf(U_{i+1}, DS)$ 가 발화 U_i 에서 영형 대명사(\emptyset)로 실현되면 그 발화의 $Cb(U_{i+1}, DS)$ 도 그래야 한다. (한국어 영형 대명사 규칙)⁸⁾

8) 국어는 영형 대명사 이외에는 대명사라는 범주 자체가 그다지 명확한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약이라 하지 않고 규칙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규칙은 매우 강력한 것이며 국어에서는 (8)과 같은 예를 통해 그 직관을 확인할 수 있다.

- (8) a. 그때 장동진이 무대에 입장했다. [\emptyset_i / 그는 / 그 사람] 정말 멋있었다.
 b. A: 우와, [\emptyset_i / 재! / 저 사람] 멋있다.
 B: 그래, [\emptyset_i / 재! / 저 사람] 정말 멋진 걸.
 c. A: [\emptyset_i / 그 사람] 멋있었어?
 B: [\emptyset_i / 그 사람] 내가 본 남자 중에서 제일 잘 생겼던 걸.

(8)에서 [] 속에 있는 표현들을 비교해 보면 앞쪽에 오는 것일수록 더 청자의 의식 속에 그 개체가 두드러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8a)에서 ‘장동진’을 가리키기 위해 \emptyset 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체를 가리키기 위해 다른 아무런 표현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청자의 의식 속에 그 개체가 두드러진 상태에 있음을 화자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실제로 그 직전 발화에서 ‘장동진’이 언급되었고 다른 개체라면 ‘무대’가 있을 텐데 무대는 문법 관계에 있어서도 ‘-에’ 논항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그 상황에서 ‘멋있’다고 말하여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⁰⁾ (8b)와 같이, A와 B의 발화에 모두 \emptyset 가 사용된 경우는 직전 발화가 없이 그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확인되는 개체에 대한 지시와 관련이 있다. (8c)의 경우는 그보다 좀더 떨어진 상황으로, \emptyset 로 지시된 대상이 그렇게 가리켜도 될 정도로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충분히 현저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다. (8b, c)의 경우는 중심화 이론이 가정하는 인지 모형의 연장선에 있지만 직전 발화를 참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에 도입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분석에서 이러한 인지 모형의 통찰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규칙 1]은 언어 표현간에 이러한 두드러짐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 차이

성까지 구별한 ‘그녀’는 성의 구별이 있는 언어의 여성 대명사를 번역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구어는 차치하고 국어의 모국어 화자가 자연스럽게 쓰는 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나 ‘그들’의 사용 역시 지극히 문어적이라고 느껴지며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선행 명사구를 반복해 주는 경우나 ‘지시사+보통명사’보다 자연스러움이 덜하다. 물론 인구의 대명사도 ‘지시사+보통명사’에서 오랜 언어 변화를 거쳐 현재의 형식과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국어에서는 아직 대명사가 그다지 자연스럽게 쓰이도록 정착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구어의 ‘개’가 가장 보편화된 대명사일 것이다. 국어에서는 영형 대명사의 사용이 무척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문법적으로 제약하고 출현을 예상하는 것이 국어 문법 연구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직접 실현된 대명사의 두드러진 정도는 영형 대명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 9) []에서 뒤에 나타난 표현일수록 그런 확신이 떨어진 경우에 화자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이 표현을 아주 명시적으로 하여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한국에서 제일 잘 생긴 배우 중 하나인 장동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장동진’이 그만큼 청자에게 낯선 개체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로, 다음 발화의 Cb로 될 것을 청자가 예측하지 못했을 개체를 Cb가 되도록 만들고 싶을 때 화자는 그렇게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0) 오히려 ‘그때 장동진이 무대에 등장’ 사실 전체가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의 가능성은 주어 ‘장동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가 담화의 응집성을 파악하는데 규칙적으로 작용함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 (9) U_i : 난 점심_i을 막 먹고 오는 길이야.
 U_{i+1} : \emptyset_i 너는 먹었니?

또, (9) U_{i+1} 에서 ‘은/는’이 붙은 ‘너’보다 ‘점심’이 Cb로 선택된다. ‘먹다’가 두 자리 논항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며 이때 U_i 에서 언급된 ‘점심’은 다음 발화에서 화자에 의해 가장 두드러진 개체이자 두 발화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 2]는 그 발화가 일어나는 담화 분절의 응집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이 유형을 제공한다. (6)에 딸린 표에서 보여주듯, 발화 U_{i+1} 로부터 발화 U_i 로의 ‘전이 유형’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i) Cb가 두 발화에서 동일하다.¹¹⁾ (ii) U_i 의 Cb가 U_i 의 Cp와 동일하다. (i)과 (ii)가 모두 지켜지면 그 전이는 ‘지속’이며, (i)이 지켜지면서 (ii)가 지켜지지 않으면 ‘유지’, (i)이 지켜지지 않으면 발화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ii)가 지켜지면 ‘완전환’, (ii)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전이는 ‘급전환’이 된다.

응집성의 측정은 청자 추론 부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는데, [규칙 2]는 어떤 전이 유형이 청자에게 부담을 덜 주어 선호되는가에 따라 유형간 선호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담화 분절의 국지적(local) 응집성의 정도는 ‘지속-유지-완전환-급전환’의 순서로 차등이 매겨진다는 것이다.¹²⁾

3. 담화 분석을 위한 국어에 대한 가정들

실제 국어 담화의 예를 중심화 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가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3.1. 영형 대명사의 복원

우선, 영형 대명사의 복원 문제이다. 영형 대명사 복원의 근거로 용언의 하위범주화 틀¹³⁾ 이외에 다른 근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용언이 어느 정도까지

11) 최초의 발화인 경우에는 이전 발화가 없으므로 Cb가 변항 상태로 있다가 이어지는 발화의 Cb와 동일한 것으로 구현된다고 보면 i)로 일반화해도 무방하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한 발화의 Cb와 다음 발화의 Cb가 부분 순서 집합(poset) 관계로 연결될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예) 그 빵 가게에는 ..., 한 귀퉁이에는 ...

12) 본 논문에서는 이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담화 전체적(global) 설계와도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13) 국어 용언의 하위범주화 틀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논항의 개수, 그 논항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격표지,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의미 선택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들이 생략되었을 경우 의미 해석을 위해 복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상적으로는, 국어의 모든 용언의 논항 구조와 의미 제약이 완전히 기술되어 있고 이에 대해 대다수의 모국어 화자가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기술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겠지만 이 또한 이론(異論)이 많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용언이 가장 전형적으로 가지는 하위범주화 틀을 먼저 상정하거나 보어와 부가어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것에 이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자료에 나타난 발화에서 실현된 명사의 격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그 용언 또는 ‘용언+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상황 의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참여자를 영형 대명사로 복원하여 Cf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우에만 보어(complement) 논항을 복원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미 실현되어 있는 논항(들)이 부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복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 a. ∅ 고갯마루에서 쉬게 됐지.

[∅-(가), 고갯마루-에서]

b. ∅ 쉬게 됐지.

[∅-(가)]

(10)에서 ‘쉬게 되다’가 취하는 필수 논항은 ‘-이/가’ 명사구를 주어로 취하는 하위 범주화 틀을 가진다고 보아 (10a)에서와 같이 영형 대명사를 복원해 주며, 이미 실현되어 있는 ‘-에서’ 명사구는 부가어로 판단되지만 그대로 표기해 준다. 그러나, (10b)에서와 같이 ‘-에서’ 논항이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어로 보이는 ‘-에서’ 명사구를 영형 대명사로 실현시키지 않을 것이다.

3.2. 발화 단위의 설정

다음으로는 발화의 단위 설정이 문제된다. 중심화 모형이 자연 담화의 분석에 이용되기 이전에는 주로 단문만이 고려되었으나 실제 담화에는 복문의 출현 빈도가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복문이라도 하나의 문장이면 그대로 하나의 발화로 처리할 것인지, 이와 달리 복문을 나눌 것이면 등위접속문, 종속접속문, 내포문 등을 발화 단위와 관련하여 그 발화에 나타난 지시 표현들을 Cf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하나의 발화 단위는 (11)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가정된다.

(11) a. 하나의 용언(용언+보조용언 포함)을 포함하는 단위가 하나의 사태를 기술해 주고 있어야 한다.¹⁴⁾

- b. 그 단위를 포함하는 최대 단위가 지배하는 서법어미의 의미기능에 결속되어야 한다.

(11b)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12)의 예를 보자.

- (12) a. 돌이는 오고 순이는 갔다.
- b. 돌이는 순이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대개 용언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태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12a)는 ‘돌이가 왔’과 ‘순이가 갔’의 두 사태를 기술해 주고 있으며, (12b)는 ‘돌이가 p-다고 말했’과 ‘순이가 집으로 돌아가(ㄴ)’의 두 사태를 기술해 주고 있다. 여기서 (12a)는 종결어미 ‘-다’의 ‘단언’이라는 의미 기능이 두 사태를 모두 직접 지배하는 반면, (12b)의 문말 서법어미 ‘-다’는 인용조사 ‘-고’에 이끌리는 사태 하나만 지배하며, 다시 ‘-고’가 그것에 묶이는 절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12b)의 p는 ‘다’의 ‘단언’ 기능에 결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12a)는 두 개의 발화, (12b)는 하나의 발화로 파악될 수 있다. 발화 단위의 확인을 위해 (12a, b)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바꿔쓰기 검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3) a. 돌이는 왔다. (○)
- b. 순이는 갔다. (○)

- (14) a. 돌이는 (p-다고) 말했다. (○)
- b. 순이는 집으로 돌아간다. (×)

(14b)는 청자가 순이가 말한 사실을 그대로 믿든 안 믿든 (12b)를 말하는 화자에 의한 단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발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직관을 기반으로 발화 단위를 언어 형식과의 대응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된 절들은 모두 하나의 발화 단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절이지만 하나의 발화 단위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관형절 또는 명사 보여절(용언어간+‘(으)ㄴ/는/(으)ㄹ’),¹⁵⁾ 명사절(용언어간+‘(으)ㅁ/기’), ‘-고’ 완형 보여절(‘-다/냐/라/자’+‘-고’) 등을 들 수 있다.¹⁶⁾

14) 사건 또는 상태를 포함하는 상황 기술의 단위를 ‘사태’라 부르기로 한다.
 15) 관계절과 형식은 동일하되 빈자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를 모두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i) a. 내가 밥을 먹은 사실 ...
 b. 밭이 타는 냄새 ...
 16) 다음 (i)와 같이 (주로 ‘기’에 의해) 명사화된 용언 뒤에 ‘-은/는, 도, 만, 까지 ...’의 특수조사가 붙은 경우는 일종의 서술어 초점화로 보아 하나의 성분으로도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의 발화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절 속하는 개체 단위들이 Cf의 서열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Walker(1998) 등 일반적으로 중심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발화 단위를 형성하는 상위절의 Cf에 이 개체 단위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되¹⁷⁾ 이 개체들의 문법 관계는 무시하기로 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접속부사의 경우이다. 접속부사는 대개 대응 용언 ‘그러다, 그러하다, 그리하다’ 등에 연결어미가 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앞 발화를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는 셈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접속부사를 하나의 발화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접속부사는 앞 용언의 반복과도 기능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 주었어. 주니까 ...’와 같은 유형이 서사문에서는 흔히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 표현의 기능은 명제 내용은 동일한데 연결어미의 의미 또는 기능만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것들을 하나의 발화 단위로 다루기로 한다는 점만 명시하고 이러한 표현들의 담화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이는 응집성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3. 개체 단위의 확인

‘개체(entity)’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언어학에서 다들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언어 단위가 포착하고 있는 개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특정 언어에 직관을 가진 화자라면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발화를 하나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발화가 주어졌을 때 그 발화에 나타난 언어 표현들이 개체화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테두리의 존재이여야 하는가 하는

(i)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더라는군.

17) Walker(1998)에서 제시된 발화 구분을 위한 작업 가정을 고려하였다.

- (i) 담화를 발화로 나누는 알고리즘(Walker, 1998: 429 부록)
 - a. 발화는 하나의 한정 동사(finite verb)를 가진 절이다.
 - b. 복합문에서 각각의 등위절은 하나의 발화를 한정한다. 그 담화에서 발화간 순서는 등위절들의 산술 순서를 따른다.
 - c. 종속절의 이전 발화는 그것의 상위절이다.
 - d. 종속절을 가진 복합문의 Cf는 주절의 Cf에 그 종속절의 Cf가 덧붙여진 것이다.
 - e. 종속절을 가진 복합문을 뒤따르는 발화는 그것의 투입으로서 복합문의 주절에서 온 중심화 자료구조를 취한다.
 - f. 대화에서 yeah, okay, uh huh 등과 같은 보조어들은 이전 발화의 중심들을 (암시적으로) 실현한다.

여기서 Walker의 종속절 개념은 종속접속사에 의해 이끌리는 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본 논문이 가정하듯, 주로 내포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Walker(1998)의 분석된 자료를 보면 ‘because, if’ 등의 접속사에 의해 이끌리는 절들이 하나의 발화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어 분석, 특히 담화 분석에서는 고려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는 ‘개체’로서 ‘지시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즉,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도 단위화될 가능성을 참작하여 개체로 처리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그들’도 개체로서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생겼던 ‘그’ 그들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사랑’도 특정 사람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 대상과 나누었던, 또는 그에 대해 품었던 ‘그’ 사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대개 언어에서 무엇인가를 개체화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이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개체화될 수 있는 어떤 속성 또는 집합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정관사나 지시사가 그 개념에 구체적인 지시체를 부여한다. 그러한 개념과 지시체의 관계가 고착화하여 개념이 곧 지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습화될 때 그 표현은 고유명사로 분류되게 되고 아무런 개념을 담지 않고 지시 기능만을 가진 어휘는 지시대명사(상황 속에 있는 개체만 지시하면 직시어(直示語; deixis)라고 부르게 됨)로 분류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런 분명한 지시성 부여의 기체가 확인되지 않는 무수식(bare) 명사구의 경우이다.

(15) 소금장수는 ...

- a. 하루는 \emptyset_1 어떤 고개를 넘다가
- b. \emptyset_1 다리도 아프고
- c. \emptyset_1 숨도 차고 해서
- d. \emptyset_1 고갯마루에서 쉬게 됐지.
- e. 마침 \emptyset_1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넓어서
- f. \emptyset_1 거기에 소금 짐을 받쳐 놓고
- g. \emptyset_1 앉아서
- h. \emptyset_1 쉬었던 말이다.

(15)에서 ‘소금장수’, ‘다리’, ‘숨’, ‘고갯마루, 큰 나무, 밑, 그늘, 소금 짐’ 등이 모두 각각 하나의 개체로 확인되어야 하는지 의문인 것이다.

국어에서는 영형 대명사를 제외하면 대명사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무수식 보통명사가 사용된 경우엔 같은 명사(같은 개체를 지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동의어(同義語)인 명사(구))를 이전 발화(또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은/는’은 주어진(given)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일 이전 발화에서 그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은/는’ 붙은 명사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총칭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의 ‘소금장수는 다리가 아프다’라는 발화가 아무런 선행 발화가 없는 상황에서 발화되었다면 우리는 ‘소금장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걸어서) 대개 다리가 아프다’는 총칭적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행 발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는 동일한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반복되어 출현한 경우이고 다른 경우는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동일한 지시체의 존재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 출현한 경우이다. (15b-f)는 모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 ‘소금장수-다리(b), 소금장수-숨(c), 어떤 고개-고갯마루(d), 고갯마루-그늘(e), 소금장수-소금 집(f)’와 같이 전자의 존재가 후자에도 함의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연상 조용(associative anaphora)’, ‘추론(inference)’, ‘가교(架橋) 지시(bridging reference)’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되는데, 국어는 고정적으로 한정성 여부를 표시하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론적 기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15e)와 같이 발화는 이전 발화들이 ‘지속’의 전이 유형으로 이어나가고 있던 중이어서 청자는 ‘Ø’가 (15e)에서도 Cb로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실제로는, (15e) 발화의 서술어인 ‘넓다’ 혹은 ‘그늘이 넓다’의 주어로 ‘소금장수’가 가진 [인간] 또는 [직업] 등의 의미 특성이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Cb가 될 수 있는 다음 후보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고갯마루’가, [그늘]이라는 의미 특성이 그것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어휘이므로 차선의 Cb로 선택되게 되는 것이다.¹⁸⁾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 모든 보통명사를 그것이 출현한 발화 U_i의 Cf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Cf 서열은 ‘개체’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개체로 확인될 수 없는 명사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다시 용언의 하위범주화 틀이 요구하는 명사들은 모두 Cf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그 명사구가 개체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는 때로 확인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요소는 어차피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잊혀지기 때문에 그 발화의 Cf 서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하위범주화 틀의 설정이 문제되는데, 국어에서 이중 주어 구문으로 알려진 예들 가운데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중 주어 구문의 기본적인 유형을 ‘N1-이 N2-이 V’라 할 때, ‘N2-이 V’를 서술절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⁹⁾ 따라서 이러한 구문 파

18) 여기서는 어휘의 의미론적 기술 대단히 중요하고 담화 처리의 특정 지점에서 어떻게 기능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지를 가정하는 정도에서 논의를 그치기로 한다. 구체적인 의미 기술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중심화 이론은 모든 담화 처리에서 의미 표상간의 사상 관계로 그 선행어를 찾는 것보다 그 담화에서 부각된 주요 중심들과 그것들 사이에 주어지는, 화자-청자의 의식 속에 두드러진 정도의 차이가 그러한 사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부여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 이는 담화 처리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인간의 담화 처리에 대한 직관에도 부합된다.

화자가 중심화 이론에 의해 청자의 의식 속에 두드러진 것으로 가정하며 발화를 이어가는 기제는 개별 어휘 또는 문법적 의미 제약에 의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의식 속에 두드러짐의 관점에서는 청자의 우선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최상의 응집성에 흠집을 내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국지적 응집성에 한정된 것이며 전체적 구조의 기술 문제는, 참작되고 있지만,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19) 허용(1981), 임동훈(1997) 등 참조. 안명철(2002)은 이를 구동사(phrasal verb)라 하고 있는데 그가

악이 통사론적으로 정비되면 이중 주어 구문의 'N2-이' 논항은 Cf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서술어의 일부로 보아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 이를 Cf 서열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이 절의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명사구만 (개체로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단위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4b)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4)를 발화 부분만 여기에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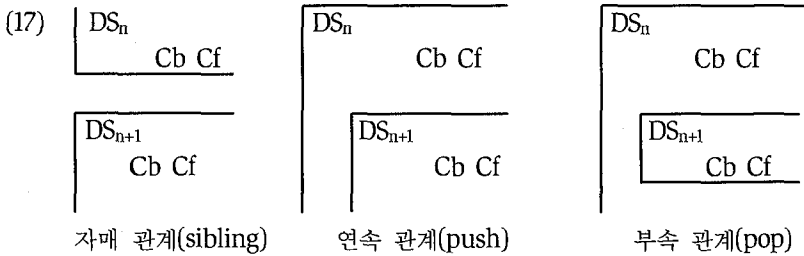
- (16) a. 철수가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b. 마침내 \emptyset_1 \emptyset 절반 정도 끝마쳤다.

(16b)의 '끝마치다'라는 동사는 (4b)에서 하나의 영형 대명사만 복원했던 것과는 달리, 'N1-이 N2-을 V'와 같은 하위범주화 격들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두 개의 영형 대명사를 복원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두 번째 영형 대명사에 대해 그 선행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15a) 전체 즉, '철수가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던 그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Cf의 서열에 반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Cf 서열이 하위범주화 틀만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는 Cf 서열 이외의 중심 후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즉, 용언의 하위범주화 틀 이외에 발화 전체라는 단위도 그 다음 발화에서 중심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 이와 같은 예가 중심화 서열에서 선호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경험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하나의 발화가 그 다음 발화에서 Cb가 되는 예가 발견된다면 이는 낮은 빈도라 해도 발화 전체가 Cb의 후보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4. 담화 구조

마지막으로, 담화의 전체적 응집성과 관련된 담화 분절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아있다. 이를 담화 구조(discourse structure)라 이를 수 있을 것인데, Grosz & Sidner(1998)는 자신들의 이전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 (17)과 같이 담화들 사이의 전이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Walker(1998)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어휘화되었다 할 정도로 굳어진 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문의 생산성은 월등히 높다. 안명철(2002)이 포착하고 있는 예들은 어휘 또는 숙어라 해도 무방하지만, 서술절을 어휘와 같은 층위로 파악한다면 그 이외의 많은 예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서술절과 그 주어 사이에 존재하는 선택적 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통사론적 틀보다는 어휘간의 의미론적 의존의 문제이므로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물론 심리형용사('무섭다', '싫다' 등)에 이끌리는 구문은 다른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담화 분절이 단절되는 경우에 그 담화 분절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각 담화의 최초 발화가 이전 담화 분절의 마지막 발화와 관련된 가능성을 관찰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담화 분절간의 전환 관계를 살필 수 있도록 담화 분절 상호간의 계층 관계를 들여쓰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3.5. 국어의 전향 중심(Cf) 서열

Cf 서열은 앞에서 특정 발화에서 어떤 Cf가 그 다음 발화의 Cb로 선호되는가 하는 서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²⁰⁾ 여기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으로 는 일단 앞서 언급되었던 실현된 명사구의 문법 관계, 표면 어순, 정보 위상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어에서 문법 관계는 실현된 격표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격표지(조사가 생략된 경우나 논항 자체가 영형 대명사로 나타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격표지와 관련하여는, 주격이 가장 선호된다는 것 외에는 그리 명확한 것 같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발화 단위의 의미론적 핵이 되는 용언의 하위범주화 틀이 그 발화에 대해 요구하는 격표지를 중심으로 어떤 격표지의 논항이 Cb로서 선호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이상의 기준 외에 기존 논의에서 고려되었던 요인으로는, ‘주제’(노용균, 1991; 장석진, 1993; 김미영, 1994; 류병률, 2001 등)가 있는데 이것은 ‘은/는’이 붙은 명사구를 Cf 서열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도 이를 포함하되²¹⁾ 용언의 보

20) 확정된 전향 중심 서열은, 다시 담화의 응집성 정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인데, 이 잣대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응집성이 차이가 난다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1)의 예로 돌아가서, ‘용’이 ‘미아’를 때렸을 때, 이어지는 발화에서 누가 ‘나쁜 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바르게 예측했을 때 전향 중심 서열은 제대로 설정된 것이 되며, ‘미아’를 ‘나쁜 애’의 주체로 결정하는 경우를 응집성이 떨어지는 예로 판정해 줄 것이다.

21) 홍민표(1999)는 주제(‘은/는’ 명사구)를 주어의 우선 순위와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제와 주어가 모두 출현한 문장에서 주제와 주어는 모두 다음 발화의 Cb가 될 수 있고 그 두 경우에 [규칙 2]를 준수하려면(두 경우 모두 전이 유형이 ‘지속’으로 되려면) Cb에 따라 주제와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비교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U₁₊₃은 필자가 추가)

- | | |
|---|---|
| <p>(i) U₁: 철수는 반에서 민수가 제일 좋았다.
 U₁₊₂: 그 다음으로 진수가 좋았다.
 U₁₊₃: 교회에서는 영희가 제일 좋았다.
 U₁₊₃: 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p> | <p>(ii) 철수는 반에서 민수가 제일 좋았다.
 마음씨가 착했다.
 종이접기도 잘했다.
 이 친구만 집으로 초대했다.</p> |
|---|---|

어 논항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것이다. 이는 시간 표현에 ‘은/는’이 붙은 경우, 그 표현은 한 발화에만 영향력을 가지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발화에 이어지는 배경과 같아서 발화와 발화를 연결하는 중심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은/는’이 붙지 않아도 시간 표현은 중심화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모두 배제하기로 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화자, 청자]가 있다. 이는 최재웅·이민행(1999)에서 가장 상위의 서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요소이다. 담화는 기본적으로 특정 화자와 특정 청자가 전제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발화들의 집합이므로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존재가 두드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매번 발화가 새로 이어질 때마다 그것이 화자나 청자에 대한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자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위의 시간 표현과 마찬가지로 담화의 배경적인 측면으로 보아, 국지적인 응집성에 그다지 우선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는 개체들이라고 가정한다.

표면 어순은 국어 문법에 대한 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용언의 보어들 사이에는 층위 구분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만 주제화와 수식에 의한 층위 구분만을 인정하여 그런 경우에만 어순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표현의 정보 위상인데, 정보 위상은 Prince(1992)에 따라 각 표현에 대해 ‘담화 구정보(discourse old; DO)/신정보(new; DN)’와 ‘청자 구정보(hearer old; HO)/신정보(new; HN)’라는 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이를 국어에 적용하면, 모든 대응 표현(영형 대명사, 대명사, 한정(지시) 관형사+보통명사)은 DO/HO, 고유명사는 DN/HO, ‘비한정 관형사+보통명사’는 DN/HN, ‘보통명사’는 DO/HO와 DN/HN이 모두 가능하다.²²⁾ Prince(1992)는 이러한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가능한 것(Inferable; I)’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현 자체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미 담화에 출현했던 개체로부터 추론된 개체를 말하는 것으로 ‘DN과 DO의 중간 / HN과 HO의 중간’ 정도의 정보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Cb로서 주어진 정보가 선호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규칙 I]에 의해 영형 대명사가 출현하는 발화에서는 반드시 영형 대명사가 Cb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들 가운데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담화의 성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Cf에 나열되는 요소들에 대해 다소 세분된 품사 정보를 덧붙여 정보 위상에 의한 예측이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재확인하기로 한다.

그는 이 두 경우가 모두 아주 자연스러운 응집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필자의 직관으로는 (i)이 응집성에 있어서 선호된다. (ii)의 U_{i+1} 과 U_{i+2} 는 필자의 직관으로는 U_i 의 부연 설명(이유)에 해당하는 발화로 담화의 주된 흐름에서 잠시 옆으로 비켜난 하위 담화 분절이라는 인상을 준다. 또 U_i 와 U_{i+1} 사이에 완전환(weak shift)의 전이 유형이 상정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따라서 U_{i+3} 과 같은 발화가 이어질 때 U_i 에서 바로 U_{i+3}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는다. 물론 U_{i+2} 와 U_{i+3} 사이에는 담화의 단절(break)가 존재한다. 이는 담화의 전체적(global) 관점을 도입하여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22) 그의 기준에서 ‘DO/HN’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특정 논항에 대한 공감도(empathy) 또는 동일시(identification)가 Cf 서열에 도입되는 경우가 있는데²³⁾ 이는 국어에서는 아직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그밖에, ‘-시’와 같은 주어 일치소가 주어(주체)와 일치체를 보이는 현상 등에서의와 같이, 지시 대상이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지 않고 의미의 지정이 명백한 경우는 Cf 서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오히려 Cf 서열에서 어긋남을 분명히 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 9, 18 참조). 청자는 담화에서 화자의 이전 발화를 통해 특정 중심의 두드러짐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 가지게 되었는데, 화자가 의미가 명시된 표현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기대되던 최우선의 Cb 후보를 버리게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4. 전래 동화 ‘이상한 이파리’의 분석을 통한 이론의 검증과 토론

이 절에서는 서정오(1996)에 실린 한국 전래 동화 ‘이상한 이파리’를 담화 응집성과 각 발화의 Cb에 대한 직관에 기초하여 분석하되 중심화 이론의 제약과 규칙, 그리고 본 논문이 가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담화 분석의 연구 방법론 정립에 시사하는 점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4.1. 기초 분석 결과²⁴⁾

* 분석 대상 단위의 수량

문장: 56
 발화: 191
 담화 분절: 27
 담화 분절 연결 지점: 36
 Cf 상의 명사구: 407

* 명사구의 정보 위상

한정 표현 (DO/HO)

23) 홍민표(1999), 김비영(1994) 등 참조. 공감도는 본래 Kuno & Kaburaki(1977)의 일본어 연구에서, 국어로 ‘오다/가다’, ‘주다/반다’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주어 이외의 특정 논항을 공감도가 부과되는 위치로 취하는 현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Kameyama(1985), Walker, Iida & Cote(1994) 등이 이를 Cf 서열에도 반영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반례로 다음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었다.

(i) U_i: Ø_i(이웃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나 보자고

U_{ii}: Ø_i 하루는 이 사람을 찾아왔어.

U_{ii}: Ø “자네,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잘하나” 하고 물었어. (두 Ø의 지표는 각각 i와 j)

(i)의 U_{ii}에서 ‘찾아왔어’가 이 사람에 공감도를 부과하는 것은 국어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발화 U_{ii}에서 Ø_j가 Cb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24) 지면 관계상 전체 분석 자료를 게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상의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는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기로 한다.

영형 대명사: 237

일반 대명사: 4 ('거기', '이거', '그것', '그저')

재귀 대명사: 1 ('자기(내포절 속의 목적어))

한정(지시) 관형사+보통명사: 18 ('이 사람', '그(이) 이파리', '그 말', '저 나무')

한정(지시) 관형사+형용사+보통명사: 3 ('이 신기한 이파리', '그 이상한 이파리', '그 많은 이파리')

한정(지시) 관형사+보통명사+보통명사: 1 ('이 사람 이웃')

- 한정 표현에 맞 내림(anchored)

재귀 대명사+보통명사: 1 ('자기 모습')

동사+보통명사: 4 ('이렇게 잡은 산짐승', '소금장사를 하던 사람', '안 보이던 사람', '가르쳐 준 고갯마루')

동사(명사화): 4 ('사마귀가 나타나기', '나타나기', '똑같은 걸 묻고 대답하기')

- 비한정 표현 (DO/HO 또는 DN/HN)

의문 대명사: 4 ('어디(모두 내포절 속))

부정 대명사: 2 ('아무')

비한정 관형사+보통명사: 5 ('한 사람', '어떤 고개', '아무 고개', '아무 가게')

비한정 관형사+의존명사: 1 ('아무 것')

의문 관형사+보통명사: 1 ('무슨 재주')

형용사+보통명사: 7 ('빈 손', '커다란 자루', '다른 이파리', '나쁜 마음', '그런 이야기')

형용사+의존명사: 3 ('회한한 것', '똑같은 거')

보통명사+동사+의존명사: 1 ('사냥을 하는 데')

보통명사+의존명사: 6 ('사마귀란 놈', '매미 옆', '집 안', '참나무 밑')

형용사+보통명사+의존명사: 1 ('큰 나무 밑')

의존명사: 2 ('밖', '앞')

보통명사+보통명사: 2 ('보물 이파리')

보통명사: 100 (소금장사, 소금집, 소금, 고개, 고갯마루, ...)

* 격조사 관련 분류 (전체:408)

-이/가 명사구: 191 (실현: 26, 미실현: 165 (영형: 156, -은/는: 8, -야: 1))

-을/를 명사구: 75 (실현: 52, 미실현: 23 (영형: 14, -은/는: 1, -도: 8))

-에게 명사구: 54 (실현: 0, 미실현: 54 (영형: 52, -은/는: 2))

(경험주: 13 (미실현: 13 (-은/는: 1)))

(도달점: 41 (미실현: 41))

-에 명사구: 32 (실현: 29 (-에나: 1), 미실현: 3 (영형: 3))

-에서 명사구: 8 (실현: 4, 미실현: 4 (영형: 4))

-(으)로 명사구: 5 (실현: 5)

-을가지고 명사구: 1 (실현: 1)

-와: 1 (미실현: 1)

-계사 논항: 1

비주절(내포절) 요소: 40 (영형 대명사: 7)

* $Cb(U_i)$ 의 $Cp(U_{i+1})$ 에서의 격조사 유형 분류 (전체: 191)

-이/가 명사구: 144 (실현: 18, 미실현: 126 (영형: 118, -은/는: 8))

-을/를 명사구: 7 (실현: 2, 미실현: 5 (영형: 5))

-에게 명사구: 27 (실현: 0, 미실현: 27 (영형: 26, -은/는: 1))
 (경험주: 9 (미실현: 9 (-은/는: 1))
 (도달점: 23 (미실현: 23))
 -에 명사구: 1 (실현: 1)
 -에서 명사구: 1 (실현: 1)
 -(으)로 명사구: 1 (실현: 1)
 -을가지고 명사구: 1 (실현: 1)
 기타 조사 및 비주절(내포절) 요소: 0
 직전 발화 전체: 1

4.2. '이상한 이파리' 담화의 분석과 개별 현상에 관한 토론

4.2.1. 첫 발화의 Cb와 화제

'이상한 이파리'의 시작은 (18)와 같다.

(18) DS[1]

- U₁: 옛날 옛날에 한 사람이 소금장사를 했다.
- U₂: Øi 소금 집을 지고
- U₃: Øi 이 동네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 U₄: Øi 소금을 파는데
- U₅: Øi 하루는 어떤 고개를 넘다가
- U₆: Øi 다리도 아프고
- U₇: Øi 숨도 차고 해서
- U₈: Øi 고갯마루에서 쉬게 됐지.

(18)에서 U₂-U₈은 모두 Øi, 즉 소금장사를 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발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도 Øi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U₁은 각주 3과 4에서 '화제'와 비교하여 언급하였듯이, 그 발화 자체에서 '한 사람'이 두드러진 요소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발화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발화에서 쉽게 Cb로 되는 것은 언급된 개체가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지만²⁵⁾ 그 발화에서도 Cb가 되도록 하는 처리는 Cb의 정의와 관련된 직관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첫 번째 발화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상정한다: 담화의 첫

25) U_i '소금장사를 하다'는 '사랑을 하다, 공부를 하다' 등과 마찬가지로 서술어의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각주 16과 19에서 명사화된 동사에 특수조사가 같은 경우와 이중주어 구문의 대부분을 서술어의 부분으로 보아 배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체화되기 어려운 요소로 보아 개체 단위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초 분석에서는 '시골 군수를 하다', '동네 문지기를 하다' 등과 같은 구문과도 대비될 수 있다고 보아 Cf에서 '소금장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어차피 '한 사람 = 소금장사'이다.

번째 발화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확립된 이야기 자체(제목)가 눈에 보이지 않는 Cb이다. 즉, 실제 이야기 상황에서 (19)의 U₁과 같은 발화가 없이 이심전심으로 화자가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과 같은 DS[0]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 DS[0]

U₁: 내(화자)가 너(청자)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 줄게.

U₂: Øi(에서는) 옛날 옛날에 한 사람이 소금장사를 했어.

그러면, (18) U₂로부터 이어지는 DS[1]은 DS[0]으로부터의 ‘완전환(smooth-shift)’으로 전이된 담화 분절이 된다. (18)에서는 U₂가 영형 대명사로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비는(/가) ...’와 같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서도 방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분석에 나타난 증거는, ‘이상한 이파리’ 담화의 맨 마지막 발화이다.

(20) DS[27]

...

U₁₄: Øs Øx 내 쫓았다.

DS[0?]

U: Ø 그런 이야기야.

(20)의 ‘그런 이야기야’의 주어 영형 대명사는 그 선행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이야기’(또는 제목으로서의 ‘이상한 이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이 이와 같다면, Cb는 각주 4에서 언급된 ‘화제’와의 차이를 좁히면서 담화 차원에서 같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4.2.2. 담화 분절과 담화 분절의 연결

우리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담화 분절과 담화 분절이 분리되는 기준은 ‘Cb의 동일성 여부’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Cb의 동일성 여부는 (i) 개체의 동일성과 (ii) 표현 형식의 동일성을 모두 포함한다. (21)을 보자.

(21) DS[1](계속)

...

U₁₁: Øi 쉬었던 말이다.

DS[3]

U₁: 이 사람_i이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U₂: Øi 쉬다가

U₃: Øi 참 희한한 것을 봤어.

DS[4]

U₁: 사마귀란 놈이 풀밭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더니

U₂: Ø₁ 나무에 올라가

U₃: Ø₁ 이파리_m를 하나 따가지고

U₄: Ø₁ Ø_m 이마에다 딱 붙이더라 이 말이지.

U₅: Ø₁ 그러니까

DS[3](계속)

U₄: Ø_i 그만 사마귀가 안 보여.

DS[4](계속)

U₆: Ø₁ 그렇게 해가지고

U₇: Ø₁ 매미_n 옆으로 슬슬 다가가는 모양인데,

DS[5]

U₁: 매미_n는 아무 것도 몰라.

U₂: Ø_n Ø 안 보이니까

U₃: Ø_n Ø 모르지.

DS[4](계속2)

U₈: Ø₁ 그렇게 해서

U₉: Ø₁ 매미_n를 잡아먹더라네.

DS[3]이 DS[4]로 이어지는 연결 지점에서는 Cb가 'Ø_i(소금장수)'에서 '사마귀'로 바뀌며, DS[4](계속)에서 DS[5]로 이어지는 연결 지점에서는 Cb가 'Ø₁(사마귀)'에서 '매미'로 지시되는 개체가 바뀌는 반면, DS[1](계속)이 끝나고 DS[3]이 될 때는 지시 대상은 '소금장수'로 같지만 표현이 영형 대명사에서 지시 관형사+보통명사('이 사람')로 바뀌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앞에서 이어지는 두드러짐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지시 대상을 명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면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 담화 분절을 달리한다.

분석 결과는 담화 분절이 서로 교차되는 경우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21)에서 DS[5]에 이어지는 DS[4](계속2)의 U₈는 DS[5]에 그대로 이어지는 발화라고 볼 수 없다. DS[5]는 DS[4]가 이어지는 중간에 '매미'에 대한 이야기로 삽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DS[4](계속2)의 Cb인 Ø₁(사마귀)는 DS[5]의 마지막 발화의 Cf에서 선택될 수 없으므로 DS[5]와 DS[4](계속2)는 전이 과정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는 또한 'DS[4]-DS[4](계속)-DS[4](계속2)'는 Cb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DS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발화들의 연쇄가 완전히 단절(break)되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여 DS[4](계속)과 DS[5]를 하나의 담화 분절로 처리하면 DS[4](계속2)는 완전히 새로운 담화 분절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영형 대명사로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담화 분절이란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며 DS[4](계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함이 직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화 분절의 교차 때문에 실제 담화 분절의 개수는 27(DS[0])을 포함하면

28)개이지만 담화 연결 지점은 36개가 된 것이다. (17)의 용어로 DS[4]는 DS[3]의 ‘부속 관계(pop)’ 담화 분절이라 할 것인데, DS[3](계속)과 DS[4](계속)의 이어짐은 이러한 부속 관계도 일회적이지 않고 연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3. Cf 서열과 그 한계

전래 동화 ‘이상한 이파리’는 구어를 채록한 형식이지만 대화가 아니고 전달이 단방향적인 서사문이며 글로 고쳐 써지는 과정에서 문어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 영형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 조사의 생략은 거의 없다. 조사의 표면형 그대로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을/를 > -에 > -이/가 > -은/는 > -로 > -에서 > -나머지 사격 > -에게(0)’의 순서가 되고, 영형 대명사를 고려하여 빈도를 살펴보면 ‘이/가 > -을/를 > -에게 > -에 > -은/는(‘이/가’ 미실현의 경우) > -에서 > -로 > 나머지 사격’의 순서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에게’ 논항의 경우, 모든 장르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모두 생략되었고, ‘이/가’ 논항도 생략되는 경우가 85% 이상에 달하는 반면, ‘을/를’ 논항은 생략되는 빈도가 훨씬 적음(25% 미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논항 비율 속에서 조사별로 Cb가 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은/는(‘이/가’ 미실현) > -이/가 > -에게 > 나머지’의 순서가 된다. 고려되는 자료에서 논항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논의는 어렵다. 다만, ‘을/를’이 Cb가 되는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Cf의 서열이 상대적인 빈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되는 표지의 논항들이 함께 들어 있는 발화에서 어느 것이 다음 발화의 Cb로 되는 것이 그 발화들의 연결을 더 응집적으로 만들어 주는지에 따라 상대적인 순서는 다시 비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에게’ 명사구의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게’ 논항을 두 종류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 역할(thematic role)을 가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도달점(goal)’의 의미 역할을 가지는 경우이다. 자료에 나타난 두 경우의 용언들은 다음과 같다.

(22) 경험주 논항을 취하는 용언: [N1-에게 N2-가]

보이다, 식은 죽먹기이다, 놀랍고 반갑다, 귀찮다

도달점 논항을 취하는 용언: [N1-이 N2-에게]

이는 채하다, 인사하다, 그러다, (-라고) 하다, 다가가다, 묻다

본 논문에서 취하는 직관으로는, 경험주 ‘에게’ 논항을 가지는 경우에, 대부분 영형 대명사나 ‘은/는’으로 실현되지만, ‘이/가’ 논항보다 Cb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각주 21 참조). (21)에서 DS[3](계속)의 U₁과 DS[5]의 U₂는 경험주 논항이 ‘이/가’ 논항보다 Cb로 선호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직관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Cf 서열을 제시한다.

(23) 국어의 Cf 서열

‘-은/는’ 명사구 > 경험주 ‘에게’ 명사구 > ‘-이/가’ 명사구 >
 도달점 ‘에게’ 명사구 > ‘을/를’ 명사구 및 나머지 사격 명사구

그런데 이러한 Cf 서열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로 어떤 발화의 Cb는 이전 발화 전체를 Cb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3.3.의 예 (16)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분석된 자료에서도 (24)와 같은 예를 만날 수 있었다.

(24) DS[14]

U₁: 소금장수i는 이 신기한 이파리m를 어디에 쓸까 하고 궁리하다가
 U₂: Øi Øm 사냥을 하는 데 쓰기로 했어.
 U₃: Øi 이파리m를 이마에 붙이기만 하면
 U₄: 자기i 모습이 안 보이게 되니
 U₅: Ø 사냥하기에 좀 좋아?

(24)의 U₅에서 Ø는 좁게는 U₄가 그 선행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좋다’를 1항 용언으로 분석하느냐 2항 용언으로 분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어느 경우이든 주어 논항이 되는 것은 U₄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담화 전체를 통틀어 하나뿐이었다. 어쨌든, 이 경우는 직전 발화와 관련되므로 Cf에서 나머지 사격 명사구 부분에 첨가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역시 더 많은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Cf의 한계가 있다. 그것은, 담화 분절(DS)의 경계가 바뀌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어지는 담화 분절의 첫 발화에서 직전 발화의 Cf가 참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대안은, 매 발화가 반드시 직전 발화만을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직전 발화의 Cf 이외의, 상황에서 두드러진 요소들에 대한 저장소를 따로 상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Walker(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캐시(cache) 모형이다. 이전의 단선적인 기억 모형인 스택(stack) 모형과 대비되는 것이다. 발화들의 응집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직전 발화의 Cf만 고려해야 한다면 이는 스택 모형이 된다. 캐시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전 담화 분절에서 Cb였던 개체들이 있겠는데 이것들은 일정 숫자의 발화가 이어지는 동안 다시 환기되지 않는다면 점차 그 두드러짐이 희석될 것이다. 또 화자, 청자, 배경 시간, 배경 장소 등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겠는데 이것들은 시종 다소 낮은 정도의 두드러짐을 유지하면서 담화의 배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5. 마무리

이 글에서는 자연 담화 단위의 분석을 위한 시도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심 상태

의 인지적 모형이 기초한 중심화 이론의 틀을 국어 문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가정을 수립하여 직접 국어 서사문 담화의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자연 담화가 가장 이상적인 응집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직관도 모국어 화자 개개인에 차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중심에 대한 가정과 국어 문법에 대한 고정된 가정의 틀이 형성되었을 때, 절을 넘어선 단위에서의 대명사 조응, 공통된 개체(Cb)에 따른 발화의 일관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발화들이 모인 담화 분절들이 연결되어 담화의 전체적 응집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서사문 담화를 분석한 것은 중심의 이동이 분명히 확인될 수 있어서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의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구어체의 대화나 보다 복잡한 구성을 가지는 문어 담화 장르의 분석을 통해 관심 상태의 인지적 모형이 자연언어의 분석 내지는 이상적인 글쓰기 모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Brennen, S. (1995). Centering attention in discours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0(2), 137-167.
- Grosz, B. and C. Sidner. (1985). The Structure of Discourse Structure. Report No. CSLI-85-39. CSLI.
- Grosz, B. and C. Sidner. (1998). Lost intuitions and forgotten intentions. In M. Walker, A. Joshi and E. Prince, eds. (pp. 39-51).
- Grosz, B., Joshi A. and S. Weinstein. (1995). Towards a computational theory of discourse interpretation. *Computational Linguistics* 21(2), 203-225.
- Kameyama, M. (1985). *Zero Anaphora: The Case of Japane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Kameyama, M. (1988). Zero pronominal binding: Where syntax and discourse meet. In P. William, ed., *Papers from the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on Japanese Syntax* (pp. 377-385). Stanford, California. CSLI.
- Kameyama, M. (1998). Intrasentential centering: A case study. In M. Walker, A. Joshi and E. Prince, eds. (pp. 89-112).
- Kehler, A. (1997). Current theories of centering for pronoun interpretation: A centering evaluation. *Computational Linguistics* 23(3), 1-8.
- No, Y. (1991). A centering approach to the *[CASE][TOPIC] restriction in

- Korean. *Linguistics* 29, 653-668.
- Prince, E. F. (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 status. In S. Thompson and W. Mann, ed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Analyses of a Fund Raising Test* (pp. 295-325).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 *Philosophica* 27, 53-94.
- Walker, M. (1998). Centering, anaphora resolution, and discourse structure. In M. Walker, A. Joshi and E. Prince, eds. (pp. 401-435).
- Walker, M. and E. Prince. (1996). A bilateral approach to givenness: A hearer-status algorithm and a centering algorithm. In J. Gundel and T. Fretheim, eds., *Reference Accessibility* (pp. 291-306).
- Walker, M., Iida M. and S. Cote. (1994). Japanese discourse and the processing of center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20(2), 193-231.
- Walker, M., Joshi A. and E. Prince. (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Oxford.
- Walker, M., Joshi A. and E. Prince. (1998). Centering in naturally occurring discourse: An overview. In M. Walker, A. Joshi and E. Prince, eds. (pp. 1-28).
- 김미영. (1994). 한국어 담화의 중심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1998). 국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한 반성 - 동사구 내포문에서의 주어 삭제제를 중심으로 -. *국어학* 32, 201-215.
- 류병률. (2001). 한국어 담화 상의 중심화와 영형 조응 현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철우. (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서정오. (199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현암사.
- 안명철. (2001).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181-207.
- 임동훈. (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31-66.
- 양동휘. (1979). Zero anaphora in Korean. *언어* 4(2), 19-54.
- 이은경. (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31. 태학사.
- 임홍빈. (1998). 구조적 평행성과 국어의 대명사. *국어 문법의 심층* 2, 549-612.
- 장석진. (1993). 화용과 문법. 탑출판사.
- 최재웅 · 이민행. (1999). 초점. 강범모 외 공저.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pp. 157-205). 서울: 한신문화사.
- 허용. (1981). *국어학*. 샘문화사.
- 홍민표. (2000). 센터링 이론과 대화체에서의 논항 생략 현상. *한국 인지과학회 논문지*. 11(1), 9-24.

박철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한국학교육연구단

전자우편: chwpa@hotmail.com

접수일자 : 2002. 5. 27.

수정본 접수 : 2002. 7. 20

게재결정 : 2002. 8. 24